

# 나주문화원 '60년 역사' 한눈에

'문화를 꽃피우다' 발간... 연혁·활동기록·보존전승 등 수록

나주문화원이 창립이후 걸어온 60년 역사를 890쪽의 두툽한 한 권의 책에 담았다. 나주문화원은 창립 60주년을 맞아 1961년부터 2020년까지 60년 나주문화원의 역사를 정리한 '문화를 꽃피우다. 나주문화원 60년' 책자를 발간해 배포했다고 밝혔다.

책자 발간은 지난 2020년 8월 '나주문화원 60년 편찬위원회'를 구성하고 자료 수집과 정리를 시작한지 1년 5개월 만에 일궈낸 결과물이다.

이 자료집은 나주문화원의 발자취와 연혁, 연도별로 펼쳐진 나주문화원의 활동 기록, 향토문화 보존전승, 나와 나주문화원 등 5개 부문을 관련 사진과 함께 생동감 있게 수록했다.

특히 130여 장의 사진은 나주문화원의 연도별 활동 모습과 역대 문화원장의 모습을 추억할 수 있다.

1961년 단일 기구로 설립된 나주문화원은 1981년 시·군 행정구역 조정에 따라 금성시와 나주군으로 따로 분리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책자에는 1986년 금성시 명칭이 나주시로 변경된 이후까지 나주군, 나주시 문화원으로 각각 분리돼 운영된 안타까운 역사와 함께 1995년 마침내 시·군 통합에 의해 하나의 나주문화원이 성립되기까지의 성장통을 고스란히 담았다.

여기에 역사적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고간 나주문화원이 심혈을 기울여 추진해온 세시풍속놀이, 삼색유산놀이, 나주들노래 보존, 남도문화제 참가 등의 핵심사업 설명과 현장 사진을 풍부하게 수록했다.

나주문화원은 자료집을 전국 각 지역 문화원과 주요 도서관, 관내 기관단체, 학교 등에 배부를 마치고, 관심 있는 시민들이 방문할 경우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나주문화원의 60년 역사를 담은 '나주문화원 60년' 책자.

최기복 나주문화원장은 "나주군 문화원의 역사를 다 기록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지만 나주문화원의 한 갑자 역사를 정리하게 돼 대단히 기쁘다"며 "나주문화원의 새로운 100년을 위해 지역 문화 창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 화순군, 에너지 바우처 28일까지 연장 접수

에너지비용 부담 경감 위해 동절기 지원금액 확대

화순군이 에너지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에너지 바우처 접수기한을 오는 28일까지 연장했다.

화순군은 유가 인상과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바우처 접수 기한을 연장하고 동절기 지원금액도 확대했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대상은 소득기준과 가구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로 오는 28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하면 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

(195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영유아(2015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녀소녀가정 중 하 나라도 해당되면 신청할 수 있다.

화순군은 최소(1인 가구) 9만 6500원에서 최대(4인 이상 가구) 19만 1000원이던 지원 금액을 최소 10만 3500원에서 최대 20만 9500원으로 확대했다. 추가 지원금은 2022년 오는 4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화순군청 일자리정책실 에너지산업팀에 문의하면 된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 담양군, 외국인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

내년 9월 완공 계획...주거환경 개선, 지역민과 소통장소로 활용

담양군이 농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를 내년 9월께 건립한다.

기숙사 신축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근로자의 안정적·체계적 관리를 통한 농가 일손부족을 해결하려는 게 사업 취지다.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사업은 2022년에서 2023년까지 2년에 걸쳐 사업비 15억원(국비 50%, 지방비 50%)을 들여 봉산면 와우리 일대에 지상 3층 규모로 50명 안팎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로 건축될 예정이다.

기숙사 건립예정지인 봉산면 와우리는 전국적 명성을 지닌 와우말기의 집단 재배지로 지난해 12월 시설원예농가를 대상으로 기숙사 입주 의향조사를 실시하는 등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마친 상태다.

기숙사는 원룸 형태로 조성될 예정이며 커뮤니티 공간을 배치해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물론 지역민과 외국인 근로자의 소통장소로도 활용할 방침이다.

그동안 담양군은 농업 인력 부족해소를 위해 농업 인력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연간 5000여 건의 인력을 연계 중이며, 외국인 근로자 보험료 지원과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을 선도적으로 추진해왔다.

최형식 담양군수는 "근로자의 안정적인 주거공간이 조성되면 노동력 격차 없이 영농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건립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담양=노영찬 기자 nyc@kwangju.co.kr



장흥 우드랜드를 찾는 방문객들이 건강체조 체험을 하고 있다.

## 장흥 편백숲 우드랜드를 '향기숲'으로

생태건축체험장·말레길·치유의 숲 새단장...서비스 도우미 선발

장흥군이 지역 대표 휴양시설인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를 새롭게 단장한다. 장흥군은 올해 '다시 찾고, 보고, 힐링하는 우드랜드'를 목표로 생태건축체험장, 말레길, 치유의 숲 시설을 보완하고 새롭게 향기숲을 조성한다.

생태건축체험장은 우드랜드를 찾는 관광객이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숙박동을 비롯한 노후된 시설물을 보완할 계획이다.

3.8km 말레길은 훼손된 곳을 보수해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단장하고, 치유의 숲은 활

력증진, 힐링공간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설물 확충에 나선다.

또 45명의 서비스 도우미를 선발해 친절한 손님 맞이에도 나선다. 이들 서비스 도우미는 우드랜드를 찾는 관광객에게 품격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우드랜드 산림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장흥군 관계자는 "방문객들이 우드랜드 자연 속에서 일상의 고단함을 녹일 수 있도록 서비스와 시설물 편의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kim@

## 장성군 군민안전보험 범위 확대

장성군이 군민안전보험 보장범위를 확대한다. 만 65세 이상 주민이 노인보호구역(실버존)에서 교통사고 상해를 입으면 이달부터 피해 등급에 따라 차등 보상을 받는다.

2019년 시행한 군민안전보험은 자연·사회재난으로 피해를 본 군민에게 보상해준다. 장성에 주소 주민은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가입비는 전액 장성군이 부담한다. 폭발·화재·붕괴·산사태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사 및 후유장애, 강도상해로 인한 사망·후유장애 등을 보상한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

## 강진군 '제3회 현구문학상' 공모

28일까지 시문학파기념관 학예연구실로 접수

강진군 현구문학상운영위원회가 제3회 현구문학상을 공개 모집한다.

현구문학상은 1930년대 김영랑과 시문학파로 활약한 김현구 시인(1903-1950)의 문학정신을 기리고 나아가 지역작가들의 사기진작과 창작 의욕 고취를 위해 영랑·현구문학상 운영 조례에 근거해 제정한 문학상이다.

수상 후보 자격은 강진군에 연고가 있는 문학인으로서 강진에 현재 2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작가와 강진에서 10년 이상 거주했던 작가, 강진에서 출생한 작가에 한한다.

출품 희망자는 강진군이나 시문학파기념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은 신청서와 최근 3년 이내(2019년 1월1일-2021년 12월 30) 출간한 개인 창작집, 강진 연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갖춰 오는 28일까지 시문학파기념관 학예연구실로 접수하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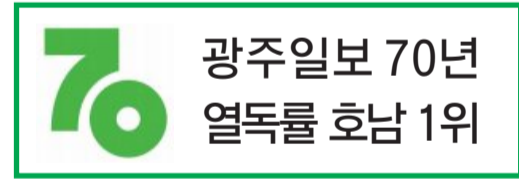
특히 현구문학상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운영위원회와 심사위원회를 분리하고 임기는

운영위원 2년, 심사위원은 당해 연도로 제한을 둔다.

김옥애 현구문학상운영위원장은 "강진에 연고를 둔 훌륭한 문학인들이 많지만 항상 중앙문단에서 외면당하는 현실이 안타까워 작가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자 현구문학상을 제정·운영하고 있다"면서 "이상을 계기로 김현구 선생의 문학정신 발현은 물론 '문학도시 강진'을 전국에 알릴 수 있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구문학상 상금은 오는 4월 30일 시문학과 기념관에서 열릴 예정이며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상금 500만원이 지급된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그린알로에

#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